

시키보

- 중국 국내에서 판매 확대하여 아시아에서의 영업을 흑자화

시키보는 그룹 기업에 의한 중국 국내에서의 판매를 확대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업을 흑자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다.

1990년대에 중국에 생산지로서 진출하였는데, 중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중국에서의 판매를 확대하여 수익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다음은 이 회사 그룹 기업이 중국 본토를 시찰 중에 시키보의 가토(加藤 禎一) 사장이 상하이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시키보는 홍콩(香港)을 포함하여 중국에 그룹 기업이 6개사 있는데 그 중에 무역 회사가 홍콩과 상하이에 각각 하나씩 있고, 생산 회사가 상하이에 2개사, 후저우(湖州)와 우시(無錫)에 1개사가 있어 총 6개사이다. 이 회사의 2009년도 상반기 연결 판매고(上半期 連結 販賣高)는 211억 엔이며, 그 중에 아시아의 소재지별(所在地別) 판매고가 31억 엔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10억 엔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이고 중국·홍콩이 22억 엔이다.

아시아의 소재지별 판매고가 2008년도 동기의 37억 엔에서 떨어져 3800만 엔의 영업 적자가 남아 있어 이것을 다시 한 번 만회하여 흑자로 바꾸는 것이 큰 테마가 되고 있다. 2008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적자폭이 줄어 하반기에는 흑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중국 국내에서의 판매를 확대하는 것을 또 하나의 테마로 다루고 있다. 우시(無錫)에서의 드라이어 캔버스(dryer canvas) 사업은 원래 중국 시장에 대응하려고 발족하였다. 의류와 생활 자재를 중국 국내에서 어떻게 판매함으로써 늘려나가는가를 찾고 있으며, 의류 분야는 내수 판매를 새로 시작하였다.

1995년에 설립된 상하이 시키보 복식(上海 敷紡 服飾)은 주로 니트 의류(knit 衣類)를 봉제하여 원래는 일본으로 다시 갖고 오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2년 동안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서 중국을 시장으로 보고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스포츠 어패럴이나 일본계 상사의 내수 판매를 위한 OEM에의 대응 등을 확대하고 있다.

후저우 시키시마 복방직품(湖州 敷島 福紡織品) 중의 침장 생지 프린트 무지 가공(寢裝生地 print 無地 加工)과 상하이 시키시마 가용 방직(上海 敷島 家用 紡織)의 침장품 봉제(寢裝品 縫製)가 서로 제휴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침장으로부터 다른 생활 잡화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07년 5월에 개업한 시키시마 공업 직물 우시(敷島 工業 織物 無錫)는 ‘제지용 드라이어 캔버스(製紙用 dryer canvas)’나 물처리용(水處理用)인 필터 클로스(filter cloth)를 봉제하여 판매하고 있다. 중국 국내 수요에 알맞게 설립한 것이며 일부는 동남아시아(東南asia)로도 수출하고 있는데 고객의 대부분이 로컬의 제지 회사들이다. 고객 설비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다. 2008년 리먼 쇼크로 잘 나가던 사업이 느닷없이 망가졌지만, 2009년 1월부터는 3교대를 개시할 계획이었는데 2009년 7 ~ 9월부터는 V형으로 경기가 상승하여 풀 조업(full 操業)을 하게 되었다. 월차(月次)보다도 흑자를 올리려 하고 있다.

시키보 무역 상하이(敷貿 貿易 上海)는 시키보 그룹의 의류 · 생활 자재 제품(生活 資材 製品)을 그룹의 생산 기업과 연동하여 취급함과 동시에 그룹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상품을 조달, 분류(assort)하여 공급하는 등 무역 회사로서의 역할을 시키보 홍콩(敷紡 香港)과 함께 담당하고 있다.♣